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레스토랑 실내이미지 선호도 차이에 관한 연구

박 영 석*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김 태 희 (경희대학교 외식산업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고객이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순히 식음구매의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호 취향에 따라 레스토랑의 분위기 및 스타일등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객에게 내부의 것을 이미지화하여 외부로 전달하는 물리적환경(servicescape)으로서 레스토랑의 실내공간을 이미지별 스타일로 분류하여,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레스토랑 실내이미지 선호도의 차이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하여 패션, 외식, 그리고 매체이용 등 3분야에 걸쳐 개발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문항과, 레스토랑 실내디자인 10가지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의 문항을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SPSS 10.0을 이용, 빈도, 요인, 신뢰도, 군집,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도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고객들과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조리교육기관의 수강생들, 그리고 한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라이프스타일에 의해 분류된 네 개의 그룹, 보수적 소신추구집단, 질적생활 추구집단, 외향적 개성추구집단, 현실적 개인중심집단 사이에는 8개의 실내디자인 스타일(로맨틱, 에스닉, 클래식, 하이테크, 엘리건트, 모던, 미니멀, 캐주얼)에 대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유행과 외식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질적생활 추구집단, 외향적 개성추구집단은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실내디자인 트렌드인 에스닉스타일 및, 클래식스타일과 엘리건트 스타일 등 실내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에서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트렌드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며,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TV를 선호하며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는 현실적 개인중심 집단은 보수적 소신추구집단에 비해 조금 높은 평균치를 보이며 특히 캐주얼스타일을 선호하고 있었다. 보수적 소신추구집단은 건강을 매우 고려하며 인쇄매체를 선호하는 그룹으로, 이들이 실내디자인 스타일에 대해 특별히 선호하는 유형이 없다는 점은 우선 밖에서 식사하는 것 자체를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보수적인 생각으로 인해 특별히 레스토랑 실내이미지에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내츨스타일은 4개의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이 평균치가 3.5이상을 나타내어 비교적 모든 그룹이 선호하는 스타일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거의 인구통계학적 접근 방법에서 탈피하여 라이프스타일의 연구의 결과로 얻어지는 세분시장의 특성을 파악한 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어 제공하는 레스토랑 실내디자인 계획은 성공하는 레스토랑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